2012. 5. 15 – 6. 28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위한 6회 연속토론회

■ 제3차 토론회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 2012. 6. 8.(금) 오후 6시 30분

▌머리말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영어수업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토론회 중, 제3차 토론회를 6월8일(금) 저녁 6시30분에 본 단체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3차 토론회의 주제는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춘진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영어수업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석 내용은 각 학교의 영어 정규수업시수 편성 현황, 영어이머전 교육 운영 실태, 수준별 반편성 여부, 영어특색사업 운영 현황(단어인증제, 공인영어시험 응시 등)에 대한 자료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수업의 경우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3학년에서 시작되는 영어수업을 1,2학년에서도 과도하게 편성하고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로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어수업시수 현황을 보면 주당 2~8시간이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에는 최대 14시간까지 편성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영어이머전 교육 실시와 매우 높은 난이도의 단어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립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반적인 영어교육의 선행학습 실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공교육과 사교육 영역에서 모두 무분별한 선행학습 방식의 조기영어교육이 갈수록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를 비롯한 사교육과 공교육 영역의 조기영어교육 현황과 실태를 정리하고 과도한 조기영어교육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6.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목 차

발 제

■ 제1발제: 최민석 (윤중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 1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영어수업 운영실태 분석 결과 발표"

■ 제2발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10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논 찬

■ 제1논찬: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30
"영어학원 이용 유아의 영어 노출 시간과 비용"

■ 제2논찬: 김영우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교수)

■ 제3논찬: 노성임 (푸른미래 언어치료센터 원장)

■ 제4논찬: 박상화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제1발제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영어수업 운영실태 분석 결과 발표

최민석 (윤중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1. 영어학습 총 시수

영어 사교육이 해마다 과열되고 있고 그 범위가 점차 영, 유아로 확대되고 있다. 사립학교 교육과정이 이런 과열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고려되어 아래와 같은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 1] 국가교육과정상 학년별 영어 기준 시수

	주간	년간
1, 2 학년	0	0
3, 4 학년	2	68+68=132
5, 6 학년	3	102+102=204

[표 2]는 서울시 40개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에 기재된 영어 교과 주간 및 년간 시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의 국가교육과정상의 기준시수를 고려할 때, 사립학교들의 영어시수는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시수 확대는 주로 3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과의 증감 또는 순증을 통해 교과별 시간 편성을 조절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별 시간 편성에는 제한이 크기에 이런 방법으로는 큰 시간의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재량활동 및 특활활동으로 편성된 시간을 통해서이다. 1~4학년의 경우

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5~6학년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재량활동과 특활활동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재량활동 및 특활활동으로 상당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여전히 [표 2]에서 보이는 시수가 확보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수의 사립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외의 시간 편성을 하여 총 시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전 학년 아이들이 하루 평균 7~8교시의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지나친 영어 교과 시수 편성은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모국어와 친숙함을 가져야 할 시기에 제 2언어 학습에 지나친 노출은 아이들을 지나친 긴장상태에 두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영어학습 시수와 비교하여 큰 차가 나므로, 지역간 학교간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사립학교 아이들의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영어학습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 시절부터 영어학습을 준비해야 하는 선행학습의 관행을 낳게 된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이런 관행들이 영어 사교육 과열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과 시수 편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표 2] 2012학년도 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 주간 및 연간 총 영어시수

학교	학년	총시수㈜	총시수(년)	학교	학년	총시수㈜	총시수(년)
경희초교	1	6	204	화랑초교	1	6	204
	2	6	204		2	6	204
	3	7	238		3	9	306
	4	7	238		4	9	306
	5	6	204		5	11	374
	6	6	204		6	11	374
금성초교	1	4	136	동산초교	1	6	204
	2	4	136		2	6	204
	3	5	170		3	5	170
	4	5	170		4	5	170
	5	6	204		5	5	170
	6	6	204		6	5	170
삼육초교	1	8	293	리라초교	1	3	102
	2	8	297		2	3	102
	3	6	223		3	5	170
	4	6	232		4	6	204
	5	5	154		5	6	204
	6	5	154		6	6	204
은석초교	1	7	210	상명대부속초교	1	6	204
	2	7	210		2	6	204

	3	7	238		3	8	272
	4	7	238		4	8	272
	5	7	238		5	9	306
	6	7	238		6	9	306
경기초교	1	5	170	숭의초교	1	4	136
	2	5	170		2	4	136
	3	5	170		3	4	136
	4	6	204		4	5	170
	5	7	238		5	5	170
	6	7	238		6	5	170
명지초교	1	3	102	신광초교	1	6	204
	2	3	102		2	6	204
	3	5	201		3	6	204
	4	5	238		4	6	204
	5	5	175		5	6	204
	6	5	175		6	6	204
선일초교	1	5	170	운현초교	1	6	204
	2	5	170		2	6	204
	3	5	178		3	6	211
	4	5	178		4	6	211
	5	5	202		5	6	213
	6	5	201		6	6	217
알로이시오초교	1	1	40	유석초교	1	5	170
	2	1	40		2	5	170
	3	2	72		3	5	170
	4	2	70		4	5	170
	5	3	112		5	7	238
	6	3	112		6	7	238
예일초교	1	5	170	계성초교	1	4	136
	2	5	170		2	4	136
	3	6	204		3	4	136
	4	6	204		4	4	138
	5	6	204		5	3	119
	6	6	204		6	4	138
은혜초교	1	6	181	중대부초	1	8	272
	2	6	181		2	8	272
	3	5	178		3	8	272
	4	6	219		4	8	272
	5	6	221		5	8	272
	6	6	223		6	8	272
이대부초	1	3	101	경복초	1	4	136
	2	3	120		2	4	136
	3	4	152		3	5	170
	4	4	142		4	5	170
	5	5	175		5	5	170
	6	5	183		6	5	170

추계초교	1	4	136	성동초교	1	7	238
	2	4	136		2	7	238
	3	5	170		3	7	239
	4	5	170		4	7	240
	5	5	175		5	7	239
	6	5	175		6	7	239
충암초교 〃	1	5	170	〃세종초교			
	1	5	179				
	2	5	170		2	5	91
	3	5	170		3	6	213
	4	5	170		4	6	207
	5	5	170		5	6	208
	6	5	170		6	6	205
홍대부설초교	1	12	408	한양초교	1	6	204
	2	12	408		2	6	204
	3	10	340		3	6	204
	4	10	340		4	6	204
	5	10	340		5	6	204
	6	10	340		6	6	204
동광초교	1	7	239	광운초교	1	8	272
	2	7	238		2	8	272
	3	8	272		3	8	272
	4	8	272		4	8	272
	5	7	238		5	8	272
	6	7	238		6	8	272
동북초교	1	9	340	대광초교	1	10	346
	2	9	340		2	10	346
	3	7	238		3	8	278
	4	7	238		4	8	278
	5	7	238		5	8	278
	6	7	238		6	8	278
상명초교	1	12	408	매원초교	1	13	480
	2	12	408		2	13	518
	3	12	408		3	10	472
	4	12	408		4	9.5	434
	5	12	408		5	9	463
	6	12	408		6	9	474
청원초교	1	14	476	성신초교	1	9	270
	2	14	476		2	9	306
	3	13	442		3	9	306
	4	13	442		4	9	306
	5	12	408		5	9	306
	6	12	408		6	9	306
태강삼육초교	1	10	340	영훈초교	1	15	510
	2	10	340		2	15	510
	3	10	340		3	15	510
	4	10	340		4	15	510

	5	10	340		5	15	510
	6	10	340		6	15	510
한신초교	1	12	408	우촌초교	1	16	544
	2	12	408		2	16	544
	3	11	374		3	16	544
	4	12	408		4	16	544
	5	12	408		5	16	544

* 참고: 전체 시수와 주간 시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을 34주로 계산하여 (34* 주간 시수)로 전체 시수를 계산하였음.

[표 3] 2012학년도 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 주간 및 년간 평균 영어시수

	주간 (hr)	년간 (hr)
전 학년	7.58	269.67
1, 2 학년	7.09	254.91

2. Immersion 교육

EFL의 학습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 시절의 제 2 언어 학습은 학습자의 사회적, 문화적 이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기의 이머젼 교육은 모국어와 친밀감을 저해시켜 모국어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한편,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사회, 문화적인 발달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머젼 교육은 학습자의 정서적, 인지적 수준과 사회적 언어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하는 사립학교들의 이머젼 교육은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고려 없이 외국어 학습을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진행되고 있다.

[표 4] 사립 초등학교 이머젼 시수 및 적용과목

학교	학년	이머젼 (주)	이머젼 (년)	적용과목	학교	학년	이머젼 (주)	이머젼 (년)	적용과목
금성초교	1	1	34	Math	중대부초	1	8	272	Language Arts, Math, Science
	2	1	34			2	8	272	
	3	2	68	Math/ Science		3	8	272	
	4	2	68			4	8	272	
	5	3	102	Math/ Science/ Social Studies		5	8	272	Language Arts, Math, Grammar,
	6	3	102			6	8	272	

									Writing
은석 초교	1	2	60	Social Studies	경복 초	1	2	68	Language Arts, Math, Grammar, Science, Social Studeis, History)
	2	2	60			2	1	34	
	3	2	68			3	3	102	
	4	2	68			4	3	102	
	5	2	68			5	3	102	
	6	2	68			6	3	102	
명지 초교	1	1	34		성동 초교	1	2	68	Science
	2	1	34			2	2	68	
	3	2	68			3	2	68	
	4	2	68			4	2	68	
	5	2	68			5		0	
	6	2	68			6		0	
홍대 부설 초	1	12	408	Language Art, Math, Science	한양 초교	1	2	68	즐생
	2	12	408			2	2	68	
	3	10	340	Language Art, Social Studies, Science		3		0	
	4	10	340			4		0	
	5	10	340			5	2	68	Morals, Home Economics
	6	10	340			6	2	68	
동북 초교	1	9	340	Social Studies, Math, Science, Grammar, Conversation	대광 초교	1	4	136	
	2	9	340			2	4	136	
	3	7	238			3	2	68	
	4	7	238			4	2	68	
	5	7	238			5	2	68	
	6	7	238			6	2	68	
상명 초교	1	12	408	'Reading & Language Arts, Math, Science, Social Studies	매원 초교	1	13	480	Language Art, Math, Science, Social Studies, Thinking Skills
	2	12	408			2	13	518	
	3	12	408			3	10	472	
	4	12	408			4	9.5	434	
	5	12	408			5	9	463	
	6	12	408			6	9	474	
태강 삼육 초교	1	10	340	Conversation, Language Arts, Math, Science	성신 초교	1	9	270	Math, Science, Social Studies
	2	10	340			2	9	306	
	3	10	340			3	9	306	
	4	10	340			4	9	306	
	5	10	340			5	9	306	
	6	10	340			6	9	306	
한신	1	7	238	Math, Art,	영훈	1	15	510	Language
	2	6	204			2	15	510	

초교				Social Studies	초교				Art, Math, Science, Social Studies
	3	5	170	Math, Art		3	15	510	
	4	6	204			4	15	510	
	5	6	204			5	15	510	
	6	6	204			6	15	510	
리라 초교	1	1	34	Math	우촌 초교	1	16	544	Reading, Writing, Grammar & Usage, Spelling, Speaking & Listening, Mathematics
	2	1	34			2	16	544	
	3	1	34			3	16	544	
	4	2	68	Science, Social Studies, Physical Education 중 선택		4	16	544	
	5	2	68			5	16	544	
	6	2	68			6	16	544	
유석 초교	1	1	34	Ethics					
	2	1	34						
	3	1	34						
	4	1	34						
	5	3	102	Ethics, Home Economics					
	6	3	102						

[표 5] 사립학교 이머젼 수업 시수 평균

	주간 시수	년 시수
평균	6.63	223.69

[표 4] 와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주에 평균 6시간 이상이 수학, 과학, 사회, 실과, 도덕 등 다양한 교과가 이머젼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학교의 이머젼 수업은 수준별 수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동기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이머젼 수업으로 인해 언어습득과 인지학습이 함께 이루어져, 아이들의 혼란스러움을 더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level test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아이들을 지속적인 긴장상태에 머물러 두기 때문이다. 이머젼 수업은 제 2 언어 학습을 영어 사용 노출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언어 학습을 돕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이머젼 수업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준별 수업

수준별 수업은 제 2 언어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머젼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40개의 학교 중 36곳의 학교에서는 명시적으로 수준별 학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상당수의 학교에서 3~4개 정도로 분반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당수 수준별 수업을 위한 기준으로 많은 학교들이 PELT, JET, TOSEL, TOEIC Bridge 등과 같은 공인 영어시험 성적을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 차원에서 영어단어인증제, 영어급수제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들 중, 일부 학교에서는 중,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공인성적으로 요구하며 일정 수준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수업 외 상당한 시간의 학습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수준별 수업은 결국 저학년부터 시험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한다. 아래의 표는 충암초등학교에서 제시하는 어휘목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표 6] 충암초등학교 교재 영어단어구성

<table>
<tr><th>단어
학년</th><th>단어 A
PART</th><th>단어 B
PART</th><th>단어 C PART</th><th>단어 D PART</th><th>필독 도서</th></tr>
<tr><td>1</td><td>중학교
1학년</td><td>Back
pack 1</td><td>Cornerstone
1-1권 단어</td><td>Phonics A, B
단어</td><td rowspan="7">학년별 지정
영어 동화책</td></tr>
<tr><td>2</td><td>중학교
2학년</td><td>Back
pack 2</td><td>Cornerstone
1-2권 단어</td><td>Phonics C 단어</td></tr>
<tr><td>3</td><td>중학교
3학년</td><td>Back
pack 3</td><td colspan="2">Cornerstone 2권 - 2</td></tr>
<tr><td>4</td><td>고등학교
1학년</td><td>Back
pack 4</td><td colspan="2">Cornerstone A권 - 2</td></tr>
<tr><td>5</td><td>고등학교
2학년</td><td>Back
pack 5</td><td colspan="2">Cornerstone B - 1권</td></tr>
<tr><td>6</td><td>고등학교
3학년</td><td>Back
pack 6</td><td colspan="2">Cornerstone B - 2권</td></tr>
</table>

[표 7] 충암초등학교 영어교육평가

<table>
<tr><th></th><th>대상</th><th>내용</th><th>횟수</th></tr>
<tr><td>학업 성취도 평가</td><td>3-6 학년</td><td>학업성취도</td><td>년 4회</td></tr>
<tr><td>수행 평가</td><td>3-6 학년</td><td>수행평가</td><td></td></tr>
<tr><td rowspan="2">단어 평가</td><td>1, 2 학년</td><td>필수영단어 200</td><td>년 4회</td></tr>
<tr><td>3-6 학년</td><td>필수영단어 800-1000</td><td>월 1회</td></tr>
</table>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제시되는 단어가 4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 단어 A PART군에 속하는 단어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이다. 뿐만 아니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이 자신의 인지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단어들을 암기하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인지적인 발달을 고려해 진행되어야 할 학교에서 아이의 발달은 무시한 채 학습효과라는 측면만을 주목하여 진행하는 현재의 학습에는 국가적 차원의 제동이 필요하다.

현재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75% 의 사립학교에서 이머젼을 실시하고 있고 대다수 학교의 이머젼 교육은 수준별 수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어린 아동기의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level test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아이들을 지속적인 긴장상태에 머물러 두기 때문이다.

이머젼 학습으로 인해 영어학습에서 갖는 어려움이 타 교과에까지 미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학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1발제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조기영어교육 경향은 1995년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교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후 급속도로 확산의 과정을 거쳐 왔다. 실제로 영유아 시기의 영어교육은 1992년 연구(우남희 외)에서는 5.7%의 유아들만이 영어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6년의 연구(우남희 외)에서는 35.4%, 2007년의 연구(김보림, 엄정애)에서는 59.0%의 유아들이 영어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강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계속 높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1]. 하지만 태교 영어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하게 과열된 지금의 조기영어교육은 가계의 높은 경제적 부담과 아동의 과도한 학습노동에도 불구하고 학습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정작 이 시기 아동에게 꼭 필요한 인지적/정서적 발달은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도한 조기영어교육은 심한 경우 영유아의 모국어 습득 능력 저하, 우울증 및 불안, 스트레스 등 발달과 정신병리학적 문제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투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 심화와 교육서비스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계층간 갈등과 위화감 조성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듯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는 이에 대

1) '조기교육/사교육' (2009, 우남희 외) 5쪽에서 인용

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상황을 그동안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서는 2008년 영어몰입교육 도입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였다[2].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면서, 영어 교과에서 가장 심각한 선행학습의 영역인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6월 말 발표할 예정인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현재 성행하고 있는 조기영어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규제 범위와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또한 이 글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기영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성인 대상 공인영어인증시험 응시와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규제가 되고 있지 못한 조기유학에 대한 부분도 논의에 포함될 것이다.

2. 조기영어교육의 개념

조기교육은 발달 특성에 근거한 적기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보다 빨리 보다 많이 가르치면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동의 흥미나 능력은 무시한 채 성인이 기대하는 내용을 발달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3].

조기교육을 이와 같이 정의할 때, 선행학습 금지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 조기영어교육은 아동의 발달 특성과 능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기에 실시되는 영어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학습지와 학원과 같은 사교육 영역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을 모두 포괄한다[4].

---

2) 교과부의 사교육비 통계 발표 결과에 의하면, 2007년에 비해 2008년과 2009년을 거치면서 초중고 영어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조가 넘게 증가(2007년 6조 1,283억원 → 2009년 7조 1,747억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취학 전 영어사교육비 증가를 합친다면, 증가폭은 훨씬 커질 것이다.

3) '영유아기 조기 선행학습의 현황과 해결방안'(임미령, '선행학습 6회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발표 자료) 2쪽

4)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용어와 개념은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아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자에 따라 조기영어교육은 초등학교 시기의 영어교육을 의미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실시되는 7세 이전의 취학 전 영어교육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3. 조기영어교육의 실태[5)]

(1) 최초 시작시기와 실시 이유

2010년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1,200명이 영어교육을 처음 시작한 연령은 3~4세(65.7%), 5세 이상(19.2%), 받은 적 없음(7.3%), 2세 이하(6.6%), 태교(1.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3.7세에 처음으로 영어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단 한 사례만이 취학 전에 영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염두에 둔 가정은 취학 전 영어조기교육을 거의 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6)].

<표 1> 최초 영어교육 연령 (단위 : %)

구분	2세 이하	3~4세	5세 이상	태교	받지 않음	평균
전체	6.6	65.7	19.2	1.3	7.3	3.7세
국공립	6.6	65.1	19.6	1.3	7.4	3.7세
사립	5.6	83.3	5.6	2.8	2.8	3.2세

자료: 유아 외국어 교육실태 연구(이윤진, 2011)

한편 취학 전에 영어교육을 실시한 동기 1순위로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관심을 갖고 친숙하게 하려고'가 44.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프로그램에 따라'(20.3%), '초등학교 영어교육 준비를 위해서'(13.2%), '자녀가 영어에 관심을 보여서'(9.5%), '국제화 시대에 영어능력이 필수라 생각해서'(6.7%), '남들보다 뒤떨어지게 될까봐'(5.8%) 순으로 조사되었다.

5) 육아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유아 외국어 교육실태 연구'(이윤진, 2011)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인용

6) 이런 판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함께 발표하는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분설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당 2~8시간의 영어 시수를 편성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반 편성을 실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사립초등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영어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염두에 둔 가정이라면 당연히 자녀에게 취학 전 영어사교육을 상당한 정도로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만 5세아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의 영어교육 실태

응답자 1,113명 중 만 5세 때 반일제 이상 기관[7]을 이용한 경우는 96.4%로 대다수의 유아들이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최장기 이용 기관은 유치원 73.3%, 보육시설 19.3%, 영어학원 6.6%, 놀이학원 0.5%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기관에서 오전에 받은 영어교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84.6%가 영어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은 100%에 가깝게 보고되었고,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 85.0%, 보육시설의 경우는 77.8%로 보고되었다. 학원인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오전 시간대에 영어교육이 진행됐다는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만 5세아 대상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오전에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주당 횟수, 회당 시간, 비용 등을 알아본 결과,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비하여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에서 교육시간 및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는 약 35분씩 주 2회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영어학원은 약 115분씩 주 5회, 놀이학원은 약 72분씩 주 5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월 3만원 정도, 영어학원은 54만원, 놀이학원은 17만원 정도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의 경우 회당 시간과 비용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아 기관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정과 타 기관에서의 영어교육 경험

반일제 이상 기관이 아닌 가정에서의 영어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유아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경험하는 영어교육 유형은 영어교재 구입으로 만 4.3세에 시작하며 비용은 평균 47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 경험이 많은 유형은 방문학습지인데 27.9% 정도가 이용했으며 평균 5.2세에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영어와 영어과외를 경험한 사례는 소수에 그쳤다.

타 기관(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등)에서의 영어교육 경험에서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만 5세의 경우 92.3%로 나타나 대부분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 여기서 반일제 이상 기관이란 유치원, 보육시설과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했던 학원까지를 포함한다.

4.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과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실태

조기영어교육은 학습지, 학원, 과외, 온라인, 문화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교육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 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기관에서도 선행학습 방식의 조기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조기영어교육 중에서 학습의 양이나 강도로 볼 때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립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조기영어교육이다.

(1)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의 영어교육 실태

영어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잘못된 신념이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부모의 불안과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매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전문학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런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은 1990년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초등학교에 영어가 정규과목으로 도입된 1997년을 전후로 '영어유치원'[8]이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 하였다. 2010년 현재 서울(76곳)과 경기도(70곳)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273곳이 운영 중이며, 학원비는 월 최고 1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런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같이 반일제 기관 형태로 운영되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는 달리 기관 나름의 교육 형태와 커리큘럼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영어학원에서 편성되는 영어시수는 6~7세의 아동이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고, 수준도 초등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내용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육아연구소가 2009년도에 발표한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하루 이용 시간은 5시간 39.0%, 6시간 24.5%, 3시간 21.6%로 유

8)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유치원으로 허가된 기관이 아니라 외국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은 최근까지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통칭해서 사용하였으나, 2011년 교과부가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단속규정을 명문화하였다.

9)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실 자료(2010)

치원 개념을 차용한다면 반일제(하루 3시간~5시간)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당 영어학원의 주당 이용일수는 일주일에 5일 이용이 84.6%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제 겨우 6~7세에 불과하며 모국어를 비롯한 인지/정서 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동에게 매주 적게는 15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에 이르는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2>는 현재 유아의 이용률이 높고 부모에게 인지도가 높은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 2곳의 커리큘럼을 정리한 것이다[10].

먼저 S어학원은 1994년 S대학교 영어교육연구소에서 유치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다음해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에 분점을 개원하면서 유아영어교육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6년에는 유치부 집중과정이라는 Rainbow Bridge를 개발하였다. 이 유치부 집중과정은 5살부터 시작하여 7살까지로 3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제중심 통합적 교수방법을 통해 유아들의 관심사와 주변 생활환경에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게 함으로써 연관 어휘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영어에의 노출량이 적은 유아들에게 장시간 적절하고 풍부한 언어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1992년 개설된 국내 최대 주니어 전문영어학원인 Y어학원은 1996년부터 영어유치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주 5일 반일제 이상 진행하는 프로그램, 1주일 3회 90분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아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주 5일 반일제 영어유치부 프로그램은 취학 전 5~7세를 대상으로 원어민교사, 한국인 영어교사와 영어로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매일 1~2교시씩 한국인 유치부 교사가 진행하는 유아교육과정 프로그램(만 3세반)이 있으며, 대부분의 수업은 원어민과 한국인이 교대로 수업을 실시한다. 수업시간은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2시20분 정도까지 이며, 정원은 10~12명이다. 수강료는 분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790,000원~840,000원 정도이다.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 영어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가 있고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에게 알맞은 수업 레벨 및 시간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진 후 적합한 클래스를 배정한다. 수업내용은 영어몰입교육(Immersion Education)을 모토로 영어적 사고력 및 유창성 향상을 위한 각 과목의 수업(Phonics, Pre-Elementary, Test Prep, Music &

10) <표 2>와 어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내용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2011) 222~226쪽에서 발췌하여 인용

Luk 등)을 교재와 Cartoon Network의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표에 과목으로 개설되어있다. 또한 교과부의 교육목표를 반영한 유아교육과정 수업(kinder, P.E, Music 등)이 1일 1~2교시씩 진행하며, 이는 만 3세반에 해당된다. 만 4세가 되면 P.E, Music 수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만 3세반에 진행되었던 유아교육과정 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정규 반일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Young Leadership Course 등의 선택수업은 월 10~12만원 정도의 추가 교육비를 부담한 후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받을 수 있다. 선택수업은 정규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화영어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교재를 활용하여 원어민 강사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Y어학원은 정규 반일제 수업으로 지내는 유치부 프로그램 이외에 1주일 3회 90분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아회화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며, 정원은 12명으로 교육비는 월 160,000원~263,000원 정도이다.

<표 2>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 영어유치부 프로그램 운영 현황(예시)

구분	S어학원	Y어학원
교육 대상	만 3~5세	만 3~5세
운영 시간	-오전 정규반: 오전 9시40분~오후 2시20분 (주 5일) -종일반: 개설 예정 ※ 각 분원마다 조금씩 다름	-오전 정규반: 오전 9시40분~오후 2시20분 (주 5일) -방과후 반: 오후 3시~5시 -유아 회화반: 오후 3시~4시30분(주 3일) ※ 각 분원마다 약간씩 다름
반 편성	각 반 10~12명(연령별) 소수 정원제 운영	각 반 10~12명(연령별) 소수 정원제 운영
교육 프로그램	<교육 커리큘럼 - 단계별 교육과정> -SAP1,2(통합집중과정 I/II, 미국교과서+SLP교재) -SAP3(영역별 기초과정 Reading + Grammar, Writign 분리학습) -SAP4,5(영역별 심화과정 I/II, Aim High + Reading, Writing, Grammar) -SAP6(전략적 학습과정 Debate, Essay Writing + Test Strategy) : 각 단계는 연령별, 수준별 단계를 의미하나 영어유치부 경험 유무에 따라 약간씩 다름	<교육특징> -IPC The Early Year Program: 17개의 교과 주제별 단원(Cross-curricular Thematic Unit)으로 구성, 활동과 연계된 계획안을 토대로 실시 -교재: English World, English Playground, English Carnival, American Curriculum Course Book, Writing Course, Harcourt Math
교육 특징	- 자체 개발 교재 Rainbow Bridge 사용 - 만 3,4세: 담임교사와 원어민교사 2담임	-원어민교사, 한국인영어교사, 한국인 유치부 교사가 각 담당과목 수업 진행

	제도 - 만 5세: 원어민교사 담임 제도	-한국 유치부 교사의 유아교육과정 프로그램 1일 1교시씩 진행
수업료	-오전 정규반 75~80만원 ※ 각 분원마다 조금씩 다름	-오전 정규반 79~84만원 / 방과후 반 10~12만원 -유아 회화반 16~27만원 ※ 각 분원마다 조금씩 다름
전국 분원	전국 69개	전국 83개

자료: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2011)

다음 <그림 1>은 Y어학원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영어유치부 프로그램의 주간 수업 일정표이다. 주 5일 동안 오전부터 점심을 먹은 이후 오후까지 영어로 계속 수업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같은 정규 유아교육기관의 통합적 일과와 다르게 교과목 단위로 세분화시켜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Y어학원 영어유치부 주간 하루 일과

	MON	TUE	WEB	THU	FRI
Circle Time					
1	IPC Seminar	IPC Seminar	IPC Seminar	IPC Seminar	IPC Seminar
2	IPC Seminar	Drama in Education	Writing	Drama in Education	Writing
3	Phonics	A,C,C,	Phonics	A,C,C,	Phonics
4	Grammar	IPC Library	Reading Master	IPC Library	Grammar
Lunch					
5	Math	Cartoon Network	Arts&Crafts	CALL	Good Manners
6	Speech	Science	P,E,	Music	Math
Wrap-Up					

자료: Y어학원 홈페이지

(2)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실태[11)]

영어공교육 강화와 학부모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되는 사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김춘진 국회의원실을 통하여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를 입수하여 각 학교의 영어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이번 토론회에서 별도의 발제를 통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이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학년부터 무리하게 영어시수를 편성하고, 영어 이외의 과목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행학습 방식의 조기영어교육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하면서 훨씬 강화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사교육 요구가 높은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에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3>은 서울의 S초등학교 2011학년도 1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이다. 1학년부터 영어 수업시수를 연간 277시간 편성하고 있다. 그 결과, 이 학교 1학년 학생은 일반적인 공립초등학교와는 달리 1학년부터 매일 6교시의 수업을 받는다. 서울 40개 사립초등학교의 201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이 일부가 아닌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거의 모든 학교가 1,2학년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14시간까지 정규수업에서 영어교과를 편성하고 있었다.

<표 3> 서울 S초등학교 2011학년도 1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교과목	국가기준시수	증가 시수	감축 시수	본교 시수	비고
국어	210	4.5		214.5	
수학	120	7		127	
바른생활	60	15		75	
슬기로운 생활	90	21		111	
즐거운 생활	180	2.5		182.5	
영어	-	277		277	
창의적 체험학습	170		-13	157	2학년과 순증 통합
증감시수 소계		+314			
계	830			1,144	
연간 총 수업 시수	1,144				

또한 영어몰입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개 학교 중 28개 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학교는 이미 기준시수보다 훨씬 많이 배정되어 있는 영어시수에도 불구하고, 수학/과학/사회/미술 등의 교과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몰입교육 시간에는 우리나라 교과서 대신 미국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4.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점

(1) 학습효과 측면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점은 우선 학습효과 측면에서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학습이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아동의 과도한 학습노동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모국어(미국, 영국 등)나 제2언어(필리핀, 인도 등)로서 영어를 배우는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영어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습득'은 불가능하다. 조기영어교육의 근거가 되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른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주장도 모국어 습득이나 영어를 쓰는 나라에 이민을 간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자연스러운 '습득'이 아니라 '학습'의 요소가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충분한 모국어의 습득, 이해력의 발달,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등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조기교육(早期敎育)'이 아니라 '적기교육(適期敎育)'이 중요한 것이다.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오해와 관련하여 영유아 대상 유명 영어전문학원에서 10년 간 강사와 교수부장을 역임했던 김나경 교사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작년에 발간한 '아깝다, 영어 헛고생'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엄마들은 이런 것 몰라요. 다섯 살인 아이가 2년에 걸쳐 습득한 영어 수준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6개월 정도면 다 터득할 수 있지요. 실제로 영어학원에서 보면 5세부터 영어유치원을 다닌 아이나 1학년 때부터 배운 아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레벨의 반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물론 조기영어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교사나 부모들에게 만족도나 효과에 대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기교육의 효과를 검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장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공교육에서 초등 3학년에 영어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에 효과를 분석하였으므로 이전에 덜 배운 아동이 많이 배운 아동보다 점수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우남희, 2009).

(2) 인지/정서 발달의 측면

비효율적인 학습효과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조기영어교육이 아동의 인지/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심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모국어 습득 능력 저하, 우울증 및 불안, 애착장애, 스트레스와 같은 발달과 정신병리학적 문제까지 발생을 시킨다. 소아정신과 의사들 사이에는 '영어유치원 10곳이 생기면 소아정신과 1곳이 생긴다' 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특히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의 경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당 25~30시간에 이르는 영어몰입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6~7세의 아동이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을 다니는 이 시기는 우리말을 익히면서 추상적 개념과 사고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령보다 낮은 3~5세 수준의 대화를 영어로 주고받는 영어 학원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성장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 연구팀이 공동육아 시설 어린이와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영어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의 언어 창의력과 도형 창의력을 비교한 결과, 영어 학원을 다니는 아동의 창의력 점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의진(2002)은 인지교육을 중심으로 한 조기교육은 유아 및 아동의 발달 단계에 상관없이 부적절한 학습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써 그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회로 중 스트레스 관련 부분의 조절력에 손상을 주고 더 나아가 면역기능 및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그는 이러한 유아 및 아동의 뇌 발달상의 문제는 인지 및 언어 발달의 저하, 사회성 저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달 지연 및 왜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면 조기교육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표 4> 아동의 창의력 비교 연구(동덕여대 우남희 교수 연구팀)

	언어창의력	도형창의력
공동육아 시설 어린이	92	106
영어유치원 어린이	68	85

자료: KBS 취재파일 4321, '조기영어교육의 명과 암'(2009. 8. 9.)

(3) 영어교육 양극화 등 사회적 측면

조기영어교육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조기영어교육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출산과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 실제로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의 비용은 매달 최소 70~80만원에서 최대 2백여만에 달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표 5> 영어유치원비 연간 비용 사례(2009년 기준)

	A영어유치원 (서울 강남구)	B영어유치원 (서울 서초구)	국립대 평균 등록금	사립대 평균 등록금	사립대 의대 평균 등록금
연간 비용	1,800만원 (월 149만원)	1,300만원 (월 110만원)	416만원	742만원	1,004만원

자료: 연합뉴스 기사(2009. 7)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실시한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응답자의 92.4%가 영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5.3%는 실제로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추가 출산 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이 지역간,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9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

영어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위계가 분명한 수학과는 달리, 진도선행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학교 영어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영어교육이 선행학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학년 이전에 실시되는 모든 영어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른 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한 조기영어교육의 규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공교육 기관의 영어 교육과정 운영과 사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1) 유치원 및 보육시설,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 금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사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규수업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도 오전 시간대에 영어교육이 상당한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2]. 이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그 이전에 영어 교과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이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이는 초등학교 1~2학년만이 아니라 공교육의 출발 기관 역할을 하는 유치원 단계 교육에서도 상급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더구나 내년부터 만 5세 누리교육과정이 도입이 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공교육 체제 안에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

(2) 사교육 영역의 취학 전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당 수업 시수 규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실시되는 영어교육이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공교육 기관이 아닌 사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교육 영역의 조기영어교육 규제는 가장 폐해가 심각한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소위 '영어유치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은 '고비용, 저효율'의 학습효과, 아동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여러 측면에서 악영향이 이루 말할

12) 만 5세 때 반일제 기관을 이용한 아동 중에서, 오전에 영어교육을 받은 경우는 84.6%였다. 이를 이용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영어학원과 놀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도 각각 85.0%, 77.8%가 오전에 영어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1)

수 없을 정도이다.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을 규제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개별 아동에게 제공되는 주당 수업 시수를 규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사교육 기관일지라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아동에게 주당 120분(40분 단위 3교시)이 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의 프로그램을 규제할 경우,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일부 침해할 수는 있지만 아동의 성장,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저출산 방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서비스 접근의 불평등 완화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영어 교과의 경우 가르치는 내용의 선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진도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진도나 프로그램이 아닌 시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수를 통한 규제는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이 주요 대상이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오후에 특별활동 형태로 진행되는 영어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3) 사교육과 공교육에서 실시되는 조기영어교육 프로그램 대한 지도/감독 강화

법률적 규제와 처벌의 대상은 앞에서 지적한 내용에 한정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 조항에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영역에서 실시되는 조기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공교육 기관은 물론이고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교재의 내용이 교육과정을 앞서는 선행학습 형태가 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교재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교육과정을 선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선행학습 금지법에 명시하도록 한다.

(4) 공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준수 의무 조항 명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든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규제를 실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진도 앞지르기 방식의 선행학습이 교사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불감증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과도한 선행학습 경향에 대한 일정한 규제 효과와 함께 불법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과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 판매를 법률로써 금지하거나 자동차의 주행 제한 속도를 제시하여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선행학습이 잘못된 관행임을 명확히 한다면, 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 정당성과 힘을 부여하기 위해 선행학습 금지법 조항에 공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준수 의무와 이에 대한 교육청 등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선 학교와 교사는 이런 조치에 힘입어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을 의식하여 수업을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학습을 받고 온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의지가 있는 학교와 교사로부터 이미 선행학습을 받아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교실 한쪽에서 자습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흥미 있는 수업을 전개하는 교육과정 준수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6) 성인 대상 공인영어인증시험 응시와 조기유학 금지

이 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기영어교육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토플, 토익, 텝스 등과 같은 성인 대상 공인영어인증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과 현행법(국외 유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조기유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공인영어인증시험의 한 종류인 텝스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23,398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플과 토익 시험은 정확한 응시자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텝스와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공인영어인증시험은 영어의 난이도와는 별개로 시험의 지문에서 다루

고 있는 내용 자체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선행학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온라인 영어 강의로 유명한 김기훈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작년에 발간한 '아깝다, 영어 헛고생' 소책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공인영어인증시험 대비 학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꼬집은 바 있다.

> "토플과 같은 영어인증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어린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말로 물어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도, 신기하게 정답은 맞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강도 높은 학습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 시험 유형에 적응한 것이지, 진짜 영어실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령 제한(예를 들어, 만 13세 이하)을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이와 같은 성인 대상 공인영어인증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선행학습 금지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무분별한 조기유학 경향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2010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 조기유학생 수는 총 1만 8,74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2009학년도의 1만 8,118명보다 623명(3.4%) 늘어난 수치이다. 영어공부를 목적으로 어린 시기에 떠나는 조기유학은 영어실력이 다소 향상할 수는 있겠지만, 귀국 후 다른 학업에서 성취도와 자신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와 떨어져 해외에서 지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처럼 '기러기 아빠'로 대표되는 가족 공동체의 상실 문제와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사실 조기유학은 현행법상에서도 이미 불법이다. '국외 유학에 관한 법률'은 제5조(자비유학자격)와 제15조(유학의 특례) 등을 통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비유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얻게

13) 국외 유학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서는 자비유학의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자비유학이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고 일선 학교에서도 귀국 후 유학 기간을 당연하게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선행학습 금지법 안에 조기유학에 대한 제한과 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조기유학이 확산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7) 영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주요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규제

성인 대상 공인 영어인증시험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유행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과거의 특목고 입시가 있다.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시에서 공인영어인증시험 성적을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전형자료로 사용하고 영어듣기 등 시험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입학전형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공인영어인증시험 대비 열풍이 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특목고 입시는 개선이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경향이 지속되는 것은 주요 대학 입학전형에서 공인영어인증시험 성적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영어인증시험 성적은 외고를 비롯한 상위권 인문계열 학생에게 주요 대학 입학의 유력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행학습 금지법에서는 주요 대학 입학 전형이 이와 같이 초중고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공인영어인증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규제 조항에서는 공인영어인증시험 반영을 특정하여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각 대학이 운영하는 입학전형이 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는 대학별 고사와 전형자료를 실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6. 조기영어교육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적기(適期)' 영어교육의 대안 제시

조기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과의 과도한 선행학습 경향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고비용, 저효율'의 조기영어교

육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과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미 2010년 '다독(多讀), 학교 실용영어교육의 새 대안'을 주제로 3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언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목표 언어에 대한 노출과 사용기회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는 환경(EFL :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 노출과 사용기회를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이는 학교를 중심으로 '다독(多讀, Extensive Reading)' 기반 실용영어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영어동화 등을 활용하는 다독 기반 실용영어교육은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환경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우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용영어에 노출이 가능하고, 듣기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따라 읽거나 써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말하기와 쓰기의 기초 연습이 된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만 된다면 지속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영어 학습이 가능하다. 영어도서관과 같은 영어교육 인프라만 잘 갖춰지고, 영어교사가 교실과 교실 밖 일상에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영어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다독 기반 실용영어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영어 성적 평균 90점이 넘어도 쉬운 원서로 공부해요."(한겨레신문 2009. 1. 18.)

<We need direction>, <100th day of school>... 백석중 김형주 학생이 최근 학교에서 읽은 영어원서들이다. 하지만 수준은 모두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맞춰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읽는 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책 한 권이 15쪽 안팎이며 문장의 개수도 한 쪽에 많아야 네 개를 넘지 않는다. 영어성적 평균 90점이 훌쩍 넘는 그가 이렇게 쉬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지도 교사인 임인숙 선생님이 쉬운 영어원서 읽기가 아이들의 영어 말문을 틔우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도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방식의 수업이 방과 후 몇 시간이 아니라 학교 영어교육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우리나라 학생의 실용영어능력은 지금보다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최근 들어 수행평가의 비중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금년 중학교 1학년부터는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적인 환경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에는 일반적인 지역의 평범한 중학교 1~2곳과 MOU를 맺고, 다독 기반 실용영어교육의 모델을 만드는 일을 추진할 계획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런 모델을 통해 조기영어교육이 아닌 '적기(適期)'에 실시되는, 그리고 사교육 의존이 아닌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는 실용영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사회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7.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조기에 실시되는 영어교육은 학습효과도 없지만,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제동 장치를 상실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조기영어교육 과열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소위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전문학원과 사립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조기영어교육 실태는 아동의 인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이 과도한 선행학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는 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기준점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기영어교육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적기(適期)' 영어교육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0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현황 통계.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실 자료(20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1). 아깝다, 영어 헛고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정 외(2011).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정책보고서 2011-30,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신의진(2002). 조기교육과 발달 병리적 문제,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아동학회.

우남희 외(2009). 조기교육/사교육. 아동학회지, 제30권 6호.

우남희(2007).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4권 제4호, 미래유아교육학회.

이윤진(2011). 유아기 영어교육실태 분석. 육아정책포럼 25호(7,8호),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2010). 영어학원 이용 유아의 영어 노출시간과 비용. 육아정책포럼 18호(5,6월),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외(2009).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 연구보고 2009-09, 육아정책연구소.

임미령(2012). 영유아기 조기 선행학습의 현황과 해결방안.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통계청(2011).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위한 연속토론회 일정

기 간	주 제	토 론	내용
1차 토론회 (5/15, 화요일)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반 실태 파악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발제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논찬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논찬
		신현승 (영재과학전문학원 원장)	논찬
		이남수 ('솔빛엄마의 부모 내공키우기' 저자)	논찬
2차 토론회 (6/1, 금요일)	수학 선행학습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부대표, 해성여고 수학교사)	발제
		최수일 (前 전국수학교사모임 대표, 수학교육연구소 소장)	발제
		홍진곤 (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논찬
		최영석 (송파청산수학원 원장)	논찬
		조성실 (서울이문초등학교 교사)	논찬
		윤경숙 (교육과학기술부 수학교육 정책팀장)	논찬
		이미경 (와이즈만 연구소장)	논찬
3차 토론회 (6/8, 금요일)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바람직한 규제 방안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발제
		최민석 (윤중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발제
		김영우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교수)	논찬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논찬
		노성임 (푸른미래 언어치료센터 원장)	논찬
		박상화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	논찬
4차 토론회 (6/14, 목요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외 각국의 사례	**황선준** (前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	발제
		류청산 (경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발제
		김헌숙 ('영국학교 시민교육' 저자)	발제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발제
		이 연 (프랑스名올리비아, 이화여대 국제학부박사과정)	발제
5차 토론회 (6/21, 목요일)	선행학습 실태 전국 조사 결과 발표와 유발 원인 해소 제도적 대책	**김춘진 국회의원**	발제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발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발제
		신문규 (교과부 사교육대책팀장)	논찬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	논찬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논찬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예정)	논찬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논찬
6차 토론회 (6/28, 목요일)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 시안 발표 공청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팀**	발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논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중	논찬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논찬
		서남수 (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논찬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공식카페:** www.noworry.kr **전화 :** 02-797-4044~6 **팩스 :** 02-797-4484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메일:** noworry@noworry.kr